구례군,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제24회 구례산수유꽃축제 안전관리계획 점검
4년만에 축제 개최로 많은 방문객 찾을 것 예상

구례군은 3월 2일 오후 4시에 제24회 구례산수유꽃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위해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례군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김순호 군수의 주재로 진행했으며, 구례경찰서장, 순천소방서장, 구례교육지원청교육장, 칠의대대장, 한국농어촌공사구례지사장, 한국전력공사 구례지사장 등 안전관련 기관장들이 참석해 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과 안전성을 검토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4년 만에 개최는 산수유꽃 축제인 만큼 많은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안전관리 비상연락망 체계, 안전관리 요원 배치 적정성, 피난 동선 확보 여부,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성, 응급환자 발생 대비 보건인력 배치, 안전사고 보험가입 여부 등 축제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세밀한 점검과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24회 산수유꽃 축제는 오는 3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온천관광단지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이며, 축제 현장에는 유관기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실시간 교통과 관람객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축제 시작부터 종료 때까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화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회 개최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통한 지속가능한 농촌 마련

화순군은 3월 2일 화순교육지원청, 농축협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2022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 '먹거리 계획' 패키지 7개 분야 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6월 그 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먹거리 계획'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하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사회복지 △신선·안전한 먹거리 제공 △환경부담 완화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 먹거리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여, 먹거리 공급체계 활성화 및 지역생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관내 로컬푸드 출하 농가 및 중소·고령·여성농 등을 대상으로 기획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화순군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을 위하여 올해 6월 총 40억 원 공모사업에 신청해 국비 20억을 확보할 계획으로,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내년에 사업을 시작하여 2025년부터 운영을 할 예정이다.

화순군은 "이번 연구용역 보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및 개선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며, "지역 내 먹거리의 생산-소비 연계를 기반으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내 농가소득 증대 및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화순=박순철 기자

담양군, 중대재해 역량 강화 위한 실무 교육 실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실무 교육…안전보건관리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담양군은 지난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 중대재해 역량 강화를 위한 80여 명의 전 실과 및 읍면 실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대한산업안전협회 소속 강사를 초빙해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된 중대재해처벌법 실무 전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사항, 위험성 평가 결과 개선 대상 실과 조치안내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담양군은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중대재해예방 전담부서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안전 교육과 현장 중심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화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담양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곡성 태안사, '문화재 바로알기' 행사 개최

곡성군이 오는 25일 태안사 일대에서'천년고찰 태안사 문화재 바로 알기'행사를 추진한다.

곡성군은 2021년부터 태안사 적인선사탑 국보 승격 기원을 위한 학술대회와 발굴 조사 실시 등 사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문화재 바로 알기 행사는 태안사 적인선사탑 국보 승격을 기원하고 곡성군 문화재를 하나라도 바로 알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행사는 곡성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2가지 파트로 나뉘어 진행된다. 1파트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재미있는 해설을 들으며 태안사 8개 문화재를 답사하고 팀별로 미션 사진 찍기 행사를 진행한다. 평소에는 볼 수 없는 현존 최대 청동대바라를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2파트는 팝페라 공연, 골든벨 퀴즈, 바이올린 협주 등 미니 콘서트와 게임이 진행된다. 군민들의 국보 승격 염원을 고스란히 담아낼 희망 퍼포먼스도 가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보 승격을 기원하는 군민들의 공감대를 높이려고 한다. 곡성군 문화 자원의 품격과 군민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태안사는 곡성군 죽곡면 태안로 622-215에 위치해 있다. 문화재 바로 알기 행사는 3월 17일까지 80명 선착순으로 접수된다. 참가 희망자는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찍어서 신청하면 된다.

곡성=양해영 기자

나주시립합창단, 9일 제11회 정기연주회 개최

나주시립합창단이 봄의 서정성을 노래하는 가곡 음악회를 연다.

나주시는 오는 9일 오후 7시 30분부터 문화예술회관에서 나주시립합창단 제11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첫 번째 무대는 독일 국적의 '로베르트 알렉산더 슈만'(1810~1856)의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연가곡인 '시인의 사랑'(Dichterlidbe)이다.

세계적인 시인 하인리히 하이네의 풋풋한 사랑과 비련의 슬픔을 노래한 16편의 시를 바탕으로 쓰여진 곡으로 특히 독일 작곡가 Wolfgang Seifen의 합창편곡은 이번 공연을 통해 한국에서 첫 연주된다.

이어지는 두 번째 무대는 '금잔디', '목련화' 등 봄꽃이 선사하는 아름다움을 노래한 가곡, 도종환 시인의 시를 토대로 작곡된 '새소리에 지는 꽃', '담쟁이' , '달아 달아 밝은 달아', 'Ritmo' 등 현대 합창곡들로 꾸며진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사전 예약번호(☎010-4802-8460)로 티켓 매수, 이름을 문자로 전송하고 현장 티켓은 공연 당일 오후 6시부터 선착순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나주=송준표 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강판
포스코SPS 포스코엠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터미널 포스코A&C